

특별기획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정읍시는 지난 15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지속 확산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위해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대응체제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AI 발생 상황에 대비한 정읍시정 재난안전상황실이 12개반 15명이 24시간 비상 운영되고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와 유입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을 통해 정읍시 축산농가의 AI 확산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보건소, 금연치료 지원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대만)는 흡연자에 대한 종합적인 금연치료 지원을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저소득층 및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내 금연치료 참여를 신청한 전문의원은 11개의원이며 금연을 결심한 저소득층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금연치료 전문의원으로 내원하여 금연상담을 받고 금연보조제 처방을 받으면 된다.

자격에 따른 의료 부담액이 있으며 저소득층과 의료수급권자는 본인부담액이 없어 금연 희망에 따른 금연치료 혜택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가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이 농업 농촌 발전과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조합원자녀들에게 17번째 장학금을 전달 인제육성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부안 농협 회의실에서 김원철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조합원 가족 및 학생 등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관내 부안, 동진, 백산, 주산지역의 조합원 자녀로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인 서외리 4구 강 선영 조합원 자녀 이정훈 조선대학교 2학년 학생 외 44명 대학생을 선정 각각 일백만 원, 서외리 3구 서은숙 조합원 자녀 안소연 부안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 외 27명 고등학생을 선정 각각 오십만 원씩 총 74 명에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북 공무원기술사회

김제서 연탄배달 봉사

전북공무원기술사회(회장 이승복, 김제시장 권행대행)는 연말을 맞이하여 지난 17일 김제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따스한 도움이 손길 절실한 소외 가정을 찾아 연탄 1,000장을 직접 전달하며 나눔과 봉사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2012년부터 시작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연말을 즈음하여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조그마한 운기라도 나누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해오고 있으며, 올 해도 회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성금을 모아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

군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 “스마트 체험하기가 가능”

부안군의회(의장 오세웅)가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활동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장관, 각 정당, 2023 세계잼버리 유치위원회,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에 보냈다.

부안군의회는 최근 우리 정부는 2023 세계잼버리 후보지로 산·돌·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져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스마트 체험하기가 가능

한 전북 부안 새만금을 선정하고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폴란드와 최후의 결전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폴란드는 바샤라 전 대통령을 잼버리 유치위원장으로 삼아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펼치는 등 지리적인 약점을 극복코자 노력하고 있는데도 우리 나라는 어수선한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유치활동 및 인력·예산 지원 등을 못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안 군의회는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활동에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정부도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잼버리(Jamboree)는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뜻을 지닌 북아메리카 인디언말인 시바이리(shivaree)에서 유래돼 1920년 세계야영대회를 제1회 국제잼버리로 명명하면서 시작됐으며 전 세계 5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스카우트의 이념과 정신을 배우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중요한 대회이다.

2023년 세계잼버리가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개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위선양의 중요한 기회가 되며 2022년이 한국스카우트연맹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라 이를 기념하는 뜻 깊은 의미가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 생활문화센터 개관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예술활동 공간 새 단장

김제시는 문화예술회관 별관에 시민 스스로가 문화의 중심이 되는 열린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난 16일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 김중희 국회의원회와 나병문 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생활문화센터를 개관했다.

김제생활문화센터는 2015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국비 50%)를 지원 받아 김제문화예술회관 기존·유류시설을 리모델링하여 2016년 11월 완공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생활문화센터 내부에는 어울림카페, 연습실 및 학습실(소리당두드림, 춤이랑노래, 꾸밈방, 모듬방, 개인연습실), 네트워크실, 다목적홀 등이 갖추어져 매주 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체 공간이 무료로 개방되어 각 공간별로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김제생활문화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능동적 문화향유와 예술을 통한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함으로써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부응하고 생활 속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시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문화 콘텐츠 학습 및 체험, 생산을 비롯해 삶의 가치와 재미를 발견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다양한 관계를 바탕으로 생활문화 확산의 거점 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 서포터즈단 워크숍 ‘성황’

지역특색 반영 특화된 거리 조성방안 강연 호응

김제시여성친화도시 시민 참여단 30명은 지난 16일, 삼성생명 전주연수소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김제시가 주관한 행사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성·가족친화 거리 조성사업 추진

과 관련 타 지역 유사사례에 대한 연구와 시민의견 수렴 등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시민을 참여토록 하여 만족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주)젠더공간 연구소 장미현 박사는 여성친화도시

분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로 활발히 활동중인 인지도 높은 도시공학 전문가로 인천 부평구의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과 광주 서구의 '이동·여성' 안전한 우리폴목 프로젝트' 부산 사상구의 여성친화공간 '우먼라이브러리', 청주시 '베티공간' 등에 대한 연구자료에 대한 소개에 이어 김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특화된 거리 조성방안에 대해 열정적인 강연을 펼쳐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냈다.

김제시는 요촌근린공원과 부영 1·2차 아파트 사이 도로 및 주변에 여성·가족친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차량통행 도로를 보행자 도로로 전환하고 도로 어린이 놀이터와 요촌근린공원을 보다 안전하며 1·3세대가 한 데 어우러질 수 있는 행복공간으로 조성해 나아갈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우리동네 깔끔day 반짝day’

부안군, 정유년 맞이 대청소

부안군이 2016년을 정갈하게 마무리하고 2017년 정유년을 새마을로 맞이하려고 지난 16일 각 실·과·소·읍·면별로 담당구역에 정해 2017년 정유년 맞이 우리동네 깔끔day, 반짝day 대청소를 벌였다.

이날 군은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 새마을로 시작하기를 슬로건으로 12월 한 달 간 매주 1회 이상 마을 주민 전체가 합심해 마을 안길 및 도로변, 공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거된 쓰레기는 생활폐기물 25톤, 재활용품 4톤 등 총 29톤을 수거 처리했다.

쓰레기 없는 부안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 군은 깨끗하고 맑은 부안을 만들기 위해 폐기물수집팀을 조직해 곳곳에 숨어있어 보이지 않는 방치폐기물까지 살살

이 수거 처리하고 있다.

특히 선진화 쓰레기배출장소(클린하우스), 영농폐기물집중처리장, 마을별 노후한 재활용품수거함 일체 교체, 쓰레기 불법투기장소 일제정비 후 삼지 공원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복플러스 선양사업 청소단체를 2017년에는 더욱 활성화해 주민과 함께 동행하는 청소행정을 펼칠 계획”이라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 장착 차량을 내년 1월부터 전격 운영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연식 친 환경축산과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안은 주민의 실천이 필요하므로 2017년에는 부안군민과 함께 쓰레기 없는 부안을 만들어 가며 함께 비상할 수 있도록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등 선진 주민의식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도배·장판 전후 사진).

정읍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정읍시가 올해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시는 올해 복권기금과 시비 총 2억8천만 원을 들여 노후 불량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시는 당초에는 70세대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공개 입찰 등을 통해 사업

비를 절감, 총 104세대에 대한 사업을 펼쳤다. 지붕 개량과 도배·장판, 그리고 싱크대 교체, 창호 시설 등을 통해 따뜻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줬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어려운 이웃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삶의 질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정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bdi Wine

GIFT SET 1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 750ml 1ea/12%

GIFT SET 4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 375ml 5ea/13%

GIFT SET 6 | 500ml 2ea/12%, 복판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